

독서문화 활성화의 동력 '독서 동아리'

기고 | 정세일(유티러스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지원사업의 체계적 통합적 정리 필요성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독서의 해' 였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여 독서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던 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독서의 해'인 2012년이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서문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보인다. 독서문화의 침체는 신간 서적 발행 종수의 감소 추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국내 신간 서적 발행 종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고 발행 부수는 17.9%나 줄어들었다 한다.

그리고 2000년대 초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로 인해 조성되었던 독서 열풍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로 인한 독서 열풍은 당시 <깡이부리말 아이들> 등 수십 권의 책들을 단 시간 내에 판매부수 200만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작년에 선정한 종합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마저도 누적 판매량이 140만 권 정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국내 독서문화의 침체 현실은 일상생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인쇄출판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대중교통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풍경이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되었고, 인쇄출판물 이용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낯선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창조경제론은 현재의 세계경제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가치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독서는 창조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창의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독서는 인간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활동 중 하나인 것이다. 몇 년 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이 만드는 길, 지식향해도 2011'이라는 제목의 독서캠페인을 통해 창의성과 독서의 관계를 일반인들이 직접 참사해보고 유형화하여 지식향해도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독서와 창의성이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최



포스코는 직원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에 디지털도서관을 운용 중에 있다.

근에는 독서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바쁜 대기업들마저도 자사 직원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독서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직원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에 디지털도서관을 운용 중에 있다. 포스코 디지털도서관은 독서문화의 확산으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독서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권장도서를 선정한 '포스코패밀리 권장선 100선'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밖에도 기업 내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포스코의 독서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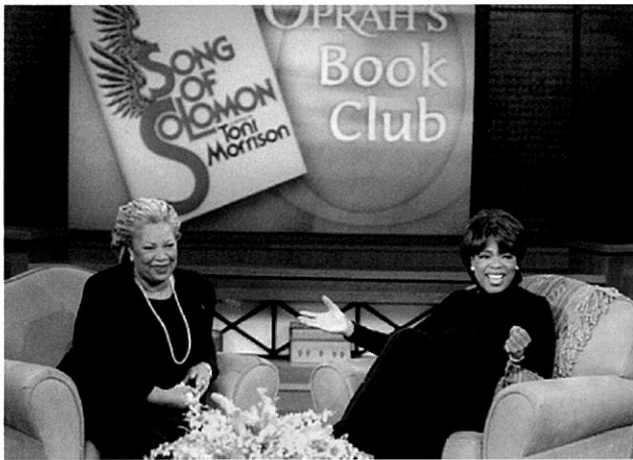
이처럼 독서활동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독서를 통해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조직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독서문화는 아직까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독서문화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독서문화의 도약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 즉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작년에 발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국내 독서문화의 증진과 도서수요 증대를 위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추진', '청소년 대상 북토콘 제도 신설 추진',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 '책 나눔 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추진과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국내 독서문화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제들과 더불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독서 동아리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추진', '청소년 대상 북토콘 제도 신설 추진',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 '책 나눔 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등의 과제는 도서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도서구입을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가장 큰 독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독서습관 정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독서 동아리는 독서습관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외의 연구들은 독서 동아리 활동이 도서관 이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도서관 활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활발한 도서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중 독서동아리 활동 경험 비율은 1.3%에 불과하지만, 독서 동아리 활동 경험자일수록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언어학술 훈련기관인 'Summer Institute of Language International'도 독서 동아리가 독서행위를 동아리 구성원들 상호간에 격려하여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쇼에 책의 저자를 초대하고 북클럽을 운영하는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으로 독서 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약 5백만 명 이상의 성인이 독서 동아리, 즉 북클럽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명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년 새해 결심 리스트(New Year's Resolution)에 항상 다이어트와 독서를 포함하는데, 그녀는 직접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들을 사진들의 토크쇼에 섭외하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프라 윈프리는 2012년 디지털 북클럽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쇼에 책의 저자를 초대하고 북클럽을 운영하는 오프라 윈프리

국내의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에서 지은 <북미 도서관에 끌리다>라는 책에서도 모순 많은 미국사회가 여전히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북클럽을 들고 있다. 북클럽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기업의 CEO가 자신 회사의 북클럽에 호스트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HR(Human Resources)분야 아웃소싱 기업 트리넷(TriNet)은 사내 독서 동아리 버튼즈 북클럽(Burton's Book Clu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북클럽의 호스트를 CEO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북클럽이 회사 내 직원들과 CEO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원들의 북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독서 동아리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독서 동아리가 독서회(Reading Group)로 불린다. 영국 독서회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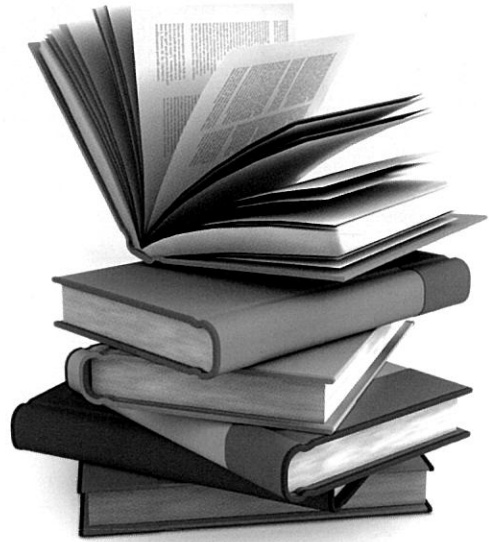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독서연맹인 TRA(The Reading Agency)에서는 'Reading Groups for Everyone'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의 독서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독서회 운영의 팁이나, 독서회 활동의 이점, 독서회 운영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영국에서의 독서회 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전통적인 인쇄출판 강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2012년 1년 동안 일본에서 100만권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가 한 권도 없었다. 일본에서 '밀리언셀러'가 탄생하지 못한 해는 2008년 이후 2012년이 최초라고 한다. 그만큼 일본 인쇄출판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많은 독서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다.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국민도 60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지역별로 운영되는 클럽의 소개와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의 사례에 비해 국내 독서 동아리의 현실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제도에 근거하여 독서 동아리 활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독서의 해'에는 정부가 독서 마니아 클럽 10만 개 결성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광주출판도시에서 최초로 '전국 독서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강원교육청은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독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학교에서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설된 독서 동아리 수는 약 1500개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하면 국내 독서 동아리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인 것이다.

국내 독서 동아리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독서 동아리의 약 85%가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서도 독서 동아리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독서를 의무화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태평양의 경우 세계화·경영·경제·리더십·자기계발 등 8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독후감이나 리포트를 써야 하는 '리딩스쿨'을 운영 중이며, 한진해운은 연평균 5학점을 따라 진급이 가능한 '독서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들로 독서 동아리 활동이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도 있다. 독서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유용한 곳 중 하나로 지역 서점을 들 수 있겠다. 지역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존립 기반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서점과 지역 독서 동아리가 연계한다면 상호간에 유익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정부도 지역서점의 위기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공간에서의 문화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몇몇 지역서점은 문화활동의 폭을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넓혀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는 독서 동아리의 모임 공간 다양화와 지역서점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외에 비해 국내 독서 동아리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중심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독서 동아리의 76%가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만으로는 국내 독서 동아리 활동의 진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중 59%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자 65% 다음으로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내 독서 동아리 활동 정보 네트워크 역시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독서는 습관이며 문화양식이다. 개인적으로는 독서를 하는 습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책을 읽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면 독서는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활동일 수 있다. 특히 SNS를 지원하는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에 혼자서 해야 하는 독서활동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독서 동아리 활동은 이러한 독서활동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은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동아리 활동은 이러한 독서활동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